

#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위해

### 개발청, 발주 기관·주요 건설사에 지역개발 사업 발주시 '우대기준' 반영 협조 요청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에서 1조 4024억 규모의 국가예산 투입으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기대되는 새만금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새만금사업을 수행 중에 있거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발주 기관과 주요건설사에 지역업체 참여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중 올해 발주되는 대형 공사에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 10여 곳의 발주기관에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을 마련해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기업의 참여율이 높아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있었음을 설명하고, 새만금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발주시 '우대기준'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또한, 국내 상위 100대 기업에도 새만금사업 취지에 맞춰 제정된 새만금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 입찰 참여시 전북지역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전달해 앞으로 집행 될 대형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결과가 주목

되고 있다.

한편, 올해 새만금지역내에서 발주될 300억원 이상 신규 대형공사는 총5건으로서 공사비는 실시설계 및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600억원에서 최대 1900억원 규모로 예상되며 주요공사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신항 북측방파제안 및 관리부두 축조공사'가 3월중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수변도시 매립공사'의 경우 상반기에 발주될 예정으로 있어 지역건설업체는 이번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행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전북 건설업체 참여 확대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전북 지역기업 참여 확대는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와 전북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 상황과 지역자재·장비 등의 사용 촉진 지원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주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으로 지역업체의 실질적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전용상담창구.

##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 상담창구 운영

### NH농협은행 전북본부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기요 본부장)는 4일부터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상담창구는 농협은행 각 영업점에 설치돼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상담을 통해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지원은 2.61~2.91%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대출지원과 함께 신규·기존대출에 대한 이자납입유예, 할부금 납입유예 서비스가 있다. 또한,

최대 1.0%(농업인 1.7%)의 금리우대와 심사기간 단축 등의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2월 17일부터 '코로나19 신속 여신지원반' 운영으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133개 사업장, 45억의 특별보증대출을 실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기요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코로나19 피해 대구·경북에 마스크·손세정제 긴급 지급

### 중기중앙회, 직접방문 자재 지역 유통상가 등에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의 피해 확산에 따라 대구·경북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당초 김기문 중앙회장은 직접 대구 지역을 방문해 중소기업계 애로를 듣고 방역물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따라 현장 직접방문은 자제하고 방역마스크 약 3만개와 손세정제 4천개, 제균티슈 6천개를 긴급 확보해 대구경북의 유통상가나 슈퍼조합을 중심으로 4일부터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회는 현장의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지원대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재 '코로나19 중소기업대책본부(본부장 김기문 중소기업회장)'를 출범해 신속한 피해상황 파악과 정부의 지원대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및 중소기업공제사업자금 등 대출 만기연장과 납부를 3개월 유예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 젓소 사양관리 지침서, 5개 국어로 발간

### 농진청,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해도 향상 위해... 목장 관리과정 만화로 정리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4일 낙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젓소 사양관리 이해도를 높이고 농장주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젓소 사양관리 매뉴얼(지침서)을 5개 국어로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에 따르면 축산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건수는 연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고용허가제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약 2만4,500명이며, 이중 축산업 분야는 약 9,600명이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에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반영해 송아지 관리부터 육성우, 착유우, 건유우 관리 등 목장관리 전반의 과정을 정리해 실었다. 특히 만화 형태로 내용을 정리해 재미를 더하고, 전문용어 설명도 덧붙여 이해하기 쉽게 꾸몄다.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를 위해 영어, 태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5개 국어로 각각 제작했으



농촌진흥청이 4일 젓소 사양관리 매뉴얼(지침서)을 5개 국어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젓소 사양관리 매뉴얼 책자.

며,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외국어를 동시에 실었다.

책자는 각 도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PDF 파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앞서 국립축산과학원은 양돈 사양관리 지침을 캄보디아어와 영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보급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축종은 추가로 외국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이 책자를 통해 축산 현장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고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 1월 전북 수출 4억8997만 달러

### 코로나19 영향 미반영... 품목별로 정밀화학원료가 가장 많아

2020년 전북도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4% 감소한 4억8,997만 달러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2월이었던 실연효과 올해에는 1월이어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아직 코로나19의 실질적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이강일)와 전주세관(세관장 진운용)이 발표한 2020년 1월 전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 수출은 4개월만에 5억 달러를 밑돌았다. 실연효과로 인해 조업률이 작년 보다 2일 줄어들었고, 이를 감안한 일별 수출액은 전년보다 9.1%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인 중국의 경우 작년보다 20.7% 감소한 9,94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기보다 중국의 수출이 우리 보다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월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로 중국, 대만, 태국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전년 보다 3.4% 증가한 6,422만 달러를 기록했다.

10대 품목 중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정밀화학원료와 농기계(\$2,872만, 43.9%)가 유이했고, 이밖에 건설광산기계(\$3,736만, -18.6%), 합성수지(\$3,546만, -18.4%), 자동차(\$3,187만, -50.5%) 등은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태국(\$1,990만, 56.5%), 대만(\$1,495만, 80.4%)을 제외하고, 미국(\$8,144만, -5.9%), 일본(\$3,122만, -25.7%), 베트남(\$2,161만, -8.0%) 등 대부분의 수출시장에서 고전했다.

이강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의 영향이 1월 수출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2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글로벌 분업화 구조와 우리 무역의 중국 비중을 고려할 때 수출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도청,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http://www.ijmaeil.com)에서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